

박상익의 《번역은 번역인가》

진정한 번역, '문화 권력 교란시키는 번역'

글_ 정여울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왜 독문학을 '버리고' 국문학을 '선택' 했냐고 묻는다. 하도 여러 번 받은 질문이라 이리저리 농치는 연기력을 개발했지만 사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매번 흠칫흠칫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렵다. 그렇게 오랫동안 독일어 언처리에서 서정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어와 그 지경으로 담을 쌓았다는 것이 부끄러워서만은 아니다. 내 생뚱맞은 전과(轉科)의 원인을 내 자신도 분명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나에게서 들어맞지 않는다. 나는 독문학을 선택한 적이 없었기에 독문학을 버릴 수조차 없었으며, 국문학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국문학의 휘장이 둘러진 피난처로 도피를 한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외국어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내신 특혜가 적용되던 시절, 나는 그 '특혜' 를 넘죽 받아먹고 독문과에 밀려들어왔다. 그저 '점수' 때문에 독문과를 선택했지 독문학에 대한 '이해' 와 '고민' 이 깊어질 여유도 철딱서니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더더욱 매번 섬뜩하게 부끄러운 건, 독문과에서 국문과로 옮겨간 이유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학부를 졸업할 때쯤 되어서야 독문학이 진정으로 좋아졌다. 졸업할 무렵에야 동경하던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고, 비록 '번역' 된 것이긴 하지만 독일문학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내 '형광등' 근성은 예외 없이 내 전공 선택에도 반영되었다. 그때서야 진정으로, 독일어 공부나 무슨 시한 폭탄이나 되는 것처럼 피해 다녔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대학원으로 진학할 때, 나는 바로 그 형편없는 독일어 실력 때문에 내 꿈의 방향타를 조정해야 했다. 한국어로도 제대로 의사소통을 못하는 내가, 당최 독일어로 된 텍스트를 그것도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 찬 문학작품을 제대로 읽어낼 자신은 없었다.

조금 더 변명의 강도를 높이자면, 나는 언어의 번역불가능성에 절망해 있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꿈틀대는 감정이나 정보조차 모국어로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데, 외국어는 말해 무엇 하랴. 번역 불가능성을 넘어 인간의 원초적 소통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렇지만 그 절망적인 소통불가능성은 내가 문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역설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나의 언어가, 나의 마음이, 결코 너에게 웅글게 다가갈 수 없다는 절망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듣고 싶은 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너와 나의 소통의 어긋남에 고꾸라지면서도, 매일매일



《번역은 번역인가》 박상익 지음 | 푸른역사 | 275쪽 | 값 12,000원

●이 글을 쓴 정여울은

'미디어 헌터' 로 <문학동네> <한국문학> <씨네21> 등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세기 초 동유약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비정치성의 정치성, 비역사성의 역사성 - 이옥론이 있으며, 공저로는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book+ing, 책과 만나다> <국민 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

또다시 자라나는 간절한 소통의 열망을 풀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 문학을 향한 외사랑의 치명적인 근거였으며, 독문학에서 국문학으로 '피신' 해온 지금까지도 그 끔찍한 소통불가능성은 나의 핵심적 관심분야이자 내 소박한 열정의 수원지였다. 그래서 나의 공식적인 전공은 한국현대문학이지만 나의 세부전공은 소통 혹은 번역불가능성이라고, 아무리 용을 써도 극복되지 않는 소통의 장벽을 내 힘닿는 데까지 천천히 녹여보고 싶은 거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다.

나는 천성적으로 '무언가를(혹은 누군가를) 씹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찬사가 증오하는 대상에 대한 비판보다는 언제나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나의 천성을 기분 좋게 무너뜨려 주었다. 《번역은 반역인가》는 분명 한국의 번역문화와 번역관련 종사자들을 무진장 씹어대는 책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책에 담겨있는 에너지가 한국의 번역문화를 망친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번역 그 자체에 대한 무한한 사랑임을 느낄 수 있었다. 내게 이 책은 단순한 '세대 비난'의 텍스트가 아닌, 번역을 둘러싼 출판문화와 한국사회 자체의 문제를 조감하고 해부하는 정밀한 풍속연구로 비춰졌다.

바벨탑의 신화로부터 시작된 언어의 장벽, 그것은 인류에게 과연 지독한 형벌이었을까. 정말 그럴까. 언어가 다르지 않았다면, 지구의 문명사회 전체가 단 하나의 균질화된 언어만을 썼다면 그 끔찍한 문화적 단조로움과 인류의 오만은 하늘을 찌르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번역가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전파시키는 문명의 특전사들이다.

"19세기 말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번역국을 설치하여 국가 주도 하에 수천, 수만 종의 서양 학술서를 번역했고, 그것은 일본 근대화의 견인차가 되었다. 고대 중국의 불교 수용도 번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고대 중국의 수많은 지성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불경 번역에 바쳤다. 10세기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 역시 그리스 고전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중세 서유럽의 이른바 '12세기의 르네상스' 역시 번역이 기폭제가 되어 꽃을 활짝 피웠다."

진정, 번역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문예부흥의 첫 발자국이다. 책을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데 이용했던 일본의 국책사업, 그 핵심과제에 '번역'이 있었다.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의 번역 붐은 번역 자체가 국책사업이 될 수 있었던 일본문화의 르네상스를 상징한다. 일본인들은 "전 세

계를 하나의 거대한 교실로 삼고, 각 분야의 정수만을 배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외래 문명의 새로운 개념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 어휘와 개념, 더 나아가 우리 문화가 풍성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 일본의 번역 활동을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한 고종석의 평가는 다소 과장되어 보이기에는 하나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번역 자체가 모국어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 수없이 언어와 문화의 번역불가능성과 싸우면서, 끊임없이 없는 단어를 '어거지로' 만들어내서라도 번역에 매달림으로써 모국어의 좁은 '우물'은 극복될 수 있다. 지식에 대한 "놀라운 먹성"이야말로 번역 르네상스의 선결조건인 것이다. 번역을 통해 이른바 문화집변 혹은 문명의 충돌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가. 번역은 단순한 기호의 전환이 아니다. 한 문화의 텍스트를 전혀 다른 문화의 텍스트로 변형한다는 것은 해당 사회의 제도, 인종, 이데올로기, 이론, 예술 등 모든 문화적 컨텐츠가 충돌하는 거대한 사건이다.

나의 무지를 고백하자면, 나는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을 매우 긍정적인 문화적 저항의 의미로 오독해왔다. 그러니까 "번역은 반역이다"가 풍기는 그 되바라진 도발성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은 본래 의미의 '번역 불가능성'에 대한 회의였다고 한다. 내 무지는 부끄럽지만, 나는 내심 내 무지와 오해가 진정한 현실이 되는 사회에서 살고프다. 오히려 제대로 된 '반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대다수 번역의 진정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존의 지식의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반역을 꿈꾸는 번역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번역은 단순한 문화의 충돌이 아니라 문화적 권력의 배치에 개입하여 균열을 일으키고 마침내 그 권력의 지형을 교란시켜 전복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번역은 반역이어야 하지 않을까. 번역문화를 바꾸는 것은 곧 출판문화를 바꾸는 것이며 학문전반의 시스템 전체를 기쁘게, 생산적으로 반역하는 것이 아닐까. 저자는 번역에 얽힌 비리와 오류로 시작하여 인문학의 비리, 나아가 한국 사회자체의 고질적 병폐까지 꿰뚫는다. 내게는 이 책이 번역에 대한 이론서나 지침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흥미진진한 한국사회의 풍자문학으로 읽힌다. **주필**